

♥ 제 2회 한국현대문학자 대회 ♥

☘

☘

이진송

망탈리테로서의 '밈meme'과
문/학/적/변/용

이화여자대학교
(blancoluna@naver.com)

1.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: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고전 '인터넷 밈'

- '밈' : 모방을 의미하는 리처드 도킨스(『이기적 유전자』)에서 비롯.
특정한 문화에서 복제 및 모방으로 변이되며 전달되는 문화적 단위.
오늘날 인터넷에서는 이미지와 문장 등의 형태로 확산 및 유포.
- '다산성', '복제 정확도', '긴 수명'이 밈의 핵심 조건
- 총체적인 문화코드이자 개인과 집단의 심성 및 지적·정서적 태도를 담은 '망탈리테'

- 동시대성을 반영
- 공동체와 시대를 결속시키거나 연결/분리
- '역주행'을 통해 과거의 것이 재창조되며 새로운 텍스트로 발굴
-- 밈을 통한 문화적 현상의 재해석과 전복의 가능성
- 생명력이 짧고 휘발되는 밈 vs. 살아남아서 '새로운 고전'이 되는 밈
- 밈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디지털 네이티브와 문학의 만남

2. 밈이 되어버린 문학을 아시오 : 문학의 밈 변용

현대문학 크로스오버

원작자 및 출처
'페브리즈' @fffebreze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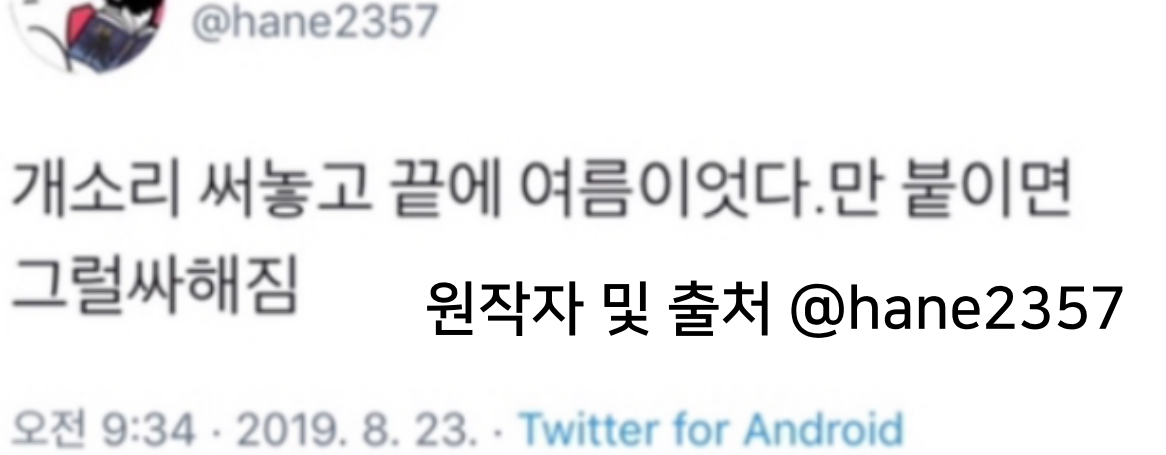
<- 전문 보기



- 서굴, 『애욕의 한국소설』(이후진 프레스, 2021) -

문학 속 인물 가운데 누구라도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습니까?
문학 속 인물이라뇨, 그런 것이…… 되고 싶겠습니까?

- 황정은 작가 인터뷰 「젊은 작가의 책」 (문학동네, 2016)-



사 @_444_com 팔로우하기

우리 좋아하는 문학밈 올리기 대회하자



2025년 01월 13일 · 2:34 오전 · 조회수 783만회

2,283 재게시물 990 인용 4,413 마음에 들어요

2,883 북마크

3. 밈이 왜 거기서 나와 : 현대문학의 밈 인용

그랜드피아노에 턱을 괴고 있는 조성진의 프로필 사진이었다. 여백에는 뽀뽀뽀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.
감사합니다, 선생님.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.
-장류진, 「일의 기쁨과 슬픔」(2019)-

→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'불로소득'이 미덕이자 선(善)이 되는 세태 반영
과도한 감사와 호의를 표하는 '주접'으로 언어적 효능감 충족

고전적 미남인 거랑 나이 들어보이는 건 다른데 유리를 아저씨, 삼촌이라고 부르는 어린 팬들이 많았다. 자기들이 은교가 되고 싶다, 이거지. 실제 아저씨를 한 번 보여줘야 하는데.
-이희주, 「최애의 아이」 (2024)-

→ 동명의 소설 『은교』에서 파생,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이 든 남성과의 관계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/ 혹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비꼬는 밈. '은교 여사'라는 2차 변주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여성 소설의 정동과 분열을 반영.

그 무렵 점점 자주 니콜라이의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.
어디서 유래하였으며 무엇이 웃음 포인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꼭 한 두명 째은 홀연히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겼다. 언젠가부터는 그 문장을 담은 이모티콘이 보이기 시작했다.
(중략)
"기립하시오 당신도!"
진주는 그 엉성한 손그림이 귀여웠다.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농담이 많았으므로 구글에서 유래를 검색해보았다. 위키는 그 문장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독일인의 시에서 유래한 밈이라 알려주었다.
-김기태, 「두 사람의 인터넷서널」(2022)-

→ 소설 전반에서 풍부하게 '밈'을 활용하여 동시대의 초상을 포착하고, 이를 독해하는 독자를 적극적으로 텍스트 내부로 초대.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직을 전전하는 주인공은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지만, 밈이 된 민중가요와 짤을 통해 이를 향유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노동자들과 연결. 연애조차 자원의 문제인 시대, 두 사람은 자신만의 '밈'인 '친한 사이'를 발명하여 기존의 관계 바깥으로 탈주.

4. 뽀뽀 얼어붙은 문학 위로 유희의 공동체가 지나갑니다 : 밈의 융복합적 전유와 상호작용

- 향유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의 비중이 높은 밈
- 매체의 변화로 독자-소설의 실시간 접속
- 독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동시에 분리 (양가적)
- 밈의 융복합적 성격과 다양한 맥락의 전유
(개별성과 통합성의 강조, 이질적이면서 관련 있는 요소들의 유기적 연결, 사회적 맥락과 관련)

- 경험을 파편화시켜 체험으로 전환하는 현대성(도시성) - 벤야민의 충격 체험과 무의지적 기억의 역할
- "보존하는 힘이 아니라 정화하고, 맥락에서 떼어내고, 파괴하는 힘"(발터 벤야민)
- 새로운 시대의 인용과 텍스트의 의미 변화
- 유행의 답습을 넘어서는 창조적 변형을 상상하며

☎ NO 아우라 YES 재미와 놀이
급구! 현대소설 갖고 노실 분 8282



참고 자료

밈과 접속하는 현대소설,
"2025년의 <아케이드 프로젝트>"가 될 수 있을까?